

문화지도: 자료활용방법과 조사내용

박성용*

1. 왜 문화지도가 필요한가?

문화지도는 한 지역의 공간적 폭과 시간적 깊이에 따라 형성된 사회·문화적 事象을 기호로 그 분포양상을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문화지도는 인간이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주어진 공간을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변형·생성시키는 가운데 관련된 문화의 경계·이동, 발전의 축, 적층된 양상 등을 지도에다 선이나 점, 기호 등으로 소묘하여 자료를 분류·해석·분석하는데 활용하는 도구이다. 이것은 가족, 친족, 결사체, 생업, 생태계, 기후특징, 식물군, 동물군, 민속종교, 축제, 민속의료, 방언, 물질문화, 시장권, 통혼권, 묘소권, 사회적 관행, 세시풍속, 교통, 정감·인지방식, 의 식 주생활의 실상을 지리적 공간 속에 드러내준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지도는 거시적 미시적 문화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문화요소의 특징적인 지역분할과 인간의 무의식이 공간에 반영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4 박성용

됨으로써 이루어진 관념적 경계, 그리고 한 사회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접합·변형된 공간의 제 양상을 제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급격한 사회·문화변동이 야기되고 있는 오늘날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공간적, 사회·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제 자료를 지도화하는 작업은 지역민의 생활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인문·사회과학의 분야에 기초가 되는 수많은 자료를 집적하는 데 다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미 문서보존소의 전통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은 19세기 중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事象에 관한 체계적인 수집과 분포양상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해온 바 있다. 그 결과 오늘날에도 과거의 영역학에 대한 학문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공간 속에서 인간과 문화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고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박성용 2000a: 128) 특히 이러한 연구작업에 관해 핀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폴란드, 프랑스, 일본 등 제 국가에서는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북유럽과 동유럽의 지도연구소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 차원에서 문화지도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문화총위와 영역에 관한 연구와 지리학적 접근을 접목·발전시킴에 따라 엄청난 양의 문화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집적하고 있다(박성용 2000a: 128). 이 같은 예를 보더라도 문화지도는 각 나라마다 자료를 집적하고 해석, 분석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민족지적 현재를 중시하는 기능주의 학자들이 전파론이나 문화영역학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방법론의 적절성에 있어서 의미를 상실한 이론으로 간주하였으나(Bromberger, Dossetto, et Schippers 1982-83: 128) 지리적 공간상에 다종다양한 사회·문화현상을 표현하여 그 분포가 갖는 사회·문화적 논리를 구명하는 일은 흥미로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문화지도를 도외시한 민족지적 서술은 독자에게 현장의 모습을 생동감있게 전달하는데 있어서 그 설

특력이 결여될 수 있고, 또한 조금이라도 발전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이와 같은 분석방법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류학이나 민속학 분야의 학자들이 조사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현상의 다양성에 관한 문화지도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민족지적 자료와 정보를 소묘하고 해석·분석해서 독자들에게 의미있는 내용과 맥락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런가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징적인 지역문화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정책을 입안하고자 할 때 문화지도를 근거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작업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점증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사실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권역을 설정하고 개발하는 거대한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 어떠한 검증이나 논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역문화권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먼저 “상당한 문화영역이 각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구축되었는가?”, “어떻게 지역문화가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행정체계와는 별개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는가?”, “중심의 역사 주변에 있는 익명의 인간들이 살아온 과정이 어떻게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표상되고 실천되는가?” 등에 관한 일차적인 자료수집과 연구가 요구된다(Park 2000: 4).

이와 같이 문화지도학적 방법은 지역사회차원에서 구조화된 사회·문화의 제 실상을 학문적·정책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계획을 시행하는데 긴요한 일차적인 자료활용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정된 인류학·민속학의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하고 민족지적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지역사회의 문화분포에 내재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논리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러한 문화지도의 방법을 통해 어떻게 사회·문화현상을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지도화하며 조사·연구단위로서의 지역 사회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2.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문화지도학적 접근은 한 지역민의 문화사가 장·단기간 중층·복합된 양상을 이해하는데 발견론적 가치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상(事象)을 지도상에 형상화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이 지향하는 목적이나 의지가 어떻게 공간상에 표현되는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그것은 일정한 물리적 공간과 관련된 문화를 기호나 상징적 형태로 지도 위에 펼쳐 보임으로써 주어진 공간과 생성된 공간의 차이와 이와 관련된 법칙, 성향, 그리고 어떠한 상태로 있게 한 메커니즘을 드러내준다. 또한 사회공간의 표상과 실천방식을 이해하는데 긴요한 준거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이 방법은 공간적,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지도는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문화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문화요소의 지역적 분할과 이동, 전파, 변화의 경향 등을 제시하고 상이한 사례를 비교·대조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된 다른 지도를 제작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박성용 2001: 115-123).

이러한 접근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문화지도학적 연구경향에서도 잘 나타난다. 전통적인 문화지도학의 연구정향은 문화영역이나 문화특징의 분포를 표현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 방법은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초엽에 문화지리학과 관련을 맺으면서 전파주의, 그리고 역사주의로 발전하였고, 특히 독일어권 국가와 스칸디나비아의 제 국가, 미국 등에서 연구·정착되었다. 브롬베르제(Bromberger 1991: 1127-128)는 상이한 이들 제 학파의 특징적인 문화지도학적 경향을 다음 몇 가지로 요약·언급한 바가 있다. 첫째, 민족지적 차원에서의 지역경계, 문화권역(Kulturkreisen), 중심부와 주변부를 나타내는 문

화영역(Wissler 1926) 등의 개념을 통해 연구한 경우이다. 둘째, 장기 지속적 시간 속에서 일어난 문화전파 현상에 천착하면서 민족지 사상(事象)이 역사적으로 공간적 분할을 한 제 양상에 관해 연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문화영역과 자연영역 사이에 괴리되는 현상이나 일치되는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생태학과 사회조직의 의미있는 관계'(Kroeber 1939: 3)에 관해 연구·분석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접근 이후에 일부 학파의 학자들은 다소 과거의 전파주의를 계승하기도 하였지만 문화충위학과 지형학의 도움으로(비엔나 학파와 핀란드 학파) 지역차원에서 많은 자료를 집적하여 그 문화특징이 갖는 의미를 究明하였다. 예컨대 독일어권민속지도(Atlas der Deutschen Volkskunde)의 경우이다(박성용 2000a: 129). 이것은 1928년에서 1938년 사이에 지역적·초지역적 차원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권역의 문화특징을 구상화한 것이다. 그런가하면 폴란드 민족지도학연구소도 영역학과 문화지도에 관한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뮤제오그라피와 문서보존소의 전통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문화지도를 발전시켰다. 대표적인 예는 스웨덴의 민속학지도이다. 아울러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지도학적 연구를 계획적으로 행한 경우도 있는데 동유럽국가의 연구를 손꼽을 수 있다. 그밖에 프랑스에서는 자국의 민속문화(Van Gennep 1937~1958, Parain 1979, Peltre et Thouvenot 1987)와 이란·아프리카와 같은 나라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문화특징의 분할 양상에 관한 민족지도학적 작업을 시행하였다(Bromberger et Digard 1975). 일본의 경우를 보면 독오학파에 영향을 받은 인류학자들이 농촌문화의 지역적 상이성을 사회구조, 사회관계, 家의 관계, 인척관계, 제례, 사회적 배경 등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양상의 분포와 경계, 영역을 지도화하는 작업을 한 바 있다(Nagashima and Tomoeda 1984).

1920년대 중기 이후에 작성된 전 세계의 문화지도학적 경향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화과정에서 사라져 가는 문화

현상을 지표화하고 공간적 분포를 제시하며 문서자료로서 수집, 보관 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지도는 전통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데 아주 간략하고 분명한 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Bratanic 1978: 101). 둘째, 거시적·미시적 문화 전체를 경계짓는 영역을 정립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다. 특히 프랑스의 방언에 관한 양적 접근을 통해 언어의 유사성이 어떻게 지도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예는 “서부 랑그독 지방의 민족지적 언어지도”(Ravier 1978)인데 인류학자와 언어학자가 제휴하여 작업한 것이다. 셋째, 문제중심적 지도학의 경향이다. 동일한 장소와 지역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기술적 속성과 특징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특징적인 현상을 소묘하는 방법이다. 넷째, 특별한 현상의 진화와 전파를 연대기적으로 위치시키거나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재구성하려는 입장 등이 있다(Bromberger, Dosseto, et Schippers 1982: 17-23).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지도는 전통적으로 문화영역이나 경계, 그리고 문화특징의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사람사이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언어와 유사한 문화적 표현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림’이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언어가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코드를 통해 의사전달을 할 수 있듯이 그림으로 표현된 지도는 자체의 규칙과 논리적 구조를 통해 사람들간에 의사전달을 가능케 하며 독자는 이를 통해 사회·문화현상을 보고, 읽고 해석·분석한다. 문화지도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지형적 제 현상을 범례·축척·방향·좌표·분포양상·지명·부호와 비언어적 기호 등을 통해 제 현상을 표현한다. 브루네(Brunet 1987: 136)에 의하면 “비언어적 코드로 구조화된 지도의 체계는 의사전달의 역할을 대신하는 하나의 언어이다”라고 하였다.

문화지도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이해·분석하는 영역학적 방법이 자 연구자가 독자에게 의미하는 바를 전달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것

은 자료제보자의 언설과 그들이 부여하는 의미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주관적 의미체계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친다. 사실 문화지도를 소묘하고 읽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연구자는 자료를 지도의 형태로 제시하고, 또한 범례로 표현하며 특징적인 현상의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석·조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양한 자료의 중요한 경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동시에 예외적인 현상이 어떠한 규칙을 제시해 주는가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다. 이 방법은 문화분포에 관한 주관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질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Kretschmer 1982-83: 72). 그런가하면 어떠한 경우에는 양자의 절충적 방법을 통해 한정된 사회·문화공간의 다양성, 문화이동, 지체된 물질문화의 정착과정 등을 지역문화사와 관련 지움으로써 언급한 제현상과 공간과의 관계체계의 역동성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지도학적 방법은 각 지역의 문화특징이 지리적 공간상에 구조화되어있거나 구조화되어 가는 양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영상을 제공한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영역학의 이론을 그대로 준용하기보다 어느 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적 事象이 시·공간적 차원에서 내재화된 규칙이나 질서를 파악·해석할 수 있게 하며 사회·문화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생활공간에서 삶을 영위하여가는 구성원이 의도적인 행동을 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변화시켜가는 가운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전략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이 방법은 기존의 역사·지리적 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지역의 문화사를 복합시켜 사회·문화적 특징을 재구성하고 다양한 사례들 간의 기호학적 상호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하기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전체사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기반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연구자들은 지역차원에서 자료수집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다양한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문화적 事象들 간의 관련성을 읽을 수 있는 제 요소들에 대해 기호로서 지도상에 표시해야 한다. 베르탱(Bertin 1967)의 주장에 의

하면 문화지도를 제작하는 이들은 지리학·지도학·'그래픽 기호학의 방법' 등에 대해 검토·응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문화 현상을 기술·소묘하는데 관련된 창의적인 지도학적 기호를 고안하여 지역사회별 문화지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자는 단순히 지도화하는 작업,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제 문화요소별로 작성된 이미지와 상징적 기호를 통해 지역의 문화요소를 입체적으로 나타내고 각 공간마다 존재하는 특성과 존재하지 않는 특성의 권역과 움직임·경향, 그리고 대립적 양상을 해석·해독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독자는 지도를 통해 상이한 문화권역이 성립된 배경, 그 지역별 다양성, 사회적 유동성과 사회집단 및 계층의 개입여부, 지형학적 요소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외형적 분포양상에 관한 피상적 이해보다 그러한 양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사회·문화적·공간적 맥락과 그 구조적 원리를 이해하고자 해야 한다.

그러나하면 문화지도를 형상화하기 위해 문화전파나 영역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호학적 상징을 통해 제 문화지표가 어떻게 지역민의 '인식지도' (Gould and White 1974)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究明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지리적 공간에 관한 주민의 정감과 인지방식을 재구성하고, 특히 지도화가 가능한 분야의 민족지적 자료를 조사자의 관찰과 지역민과의 면접과 대화를 통해 심층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그 밖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 분류, 기호화하는 일을 어떻게 각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전문가들이 협동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단기적 시간동안에 형성된 지역민의 문화사를 이해하기 위한 이와 같은 작업은 그 층위의 분포를 기술하고 통계분석을 요하는 항목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발견하며, 그 결과의 지역적 차이를 이해하려 할 때 자료의 한계와 비교방법의 유용성에 관한 각 지역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화를 지도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역별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일

은 어느 한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대학과 박물관, 관련연구소와 기관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미리 수집된 자료에 관해 어떻게 지도학적 차원에서 양적, 질적으로 체계화할 것인지를 논의해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병행하여 事象을 수집하기 위해 연구자는 지도화가 가능한 문화요소에 관해 목록을 작성해야한다. 그리고 전국차원에서 동일한 준칙 하에서 조사가 가능하도록 질문서를 작성한다면 지역 문화의 같고 다른 점을 비교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이 때 연구·조사 범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본단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조사자료를 체계화할 때에는 규격화 표준화된 행정 경계보다 생태계, 지역문화사의 특성 등에 따라서 지역사회별로 조사단위를 부여하는 것도 공간조직의 관계체계를 이해하는 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미 역사의 저편 속으로 사라져버린 익명의 인간과 현재 살아있는 지역민의 삶, 그리고 이에 관련된 다종다양한 사건과 일상생활이 어떻게 지리적 공간 속에 적층되고 연속 불연속되는지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3. 무엇을 지도화할 수 있는가?

국내 민속학·인류학 분야에서 문화권역에 관한 몇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광규(1975: 13-14)는 隱居制度에 관해 연구하면서 그 분포가 대체로 경상북도 이북, 그리고 한반도의 동부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不換型·비정형·정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 연구는 독오권에서 전통적으로 연구하는 문화분포의 유형적 접근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전경수(1977: 63)는 진도인의 거주공간이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적과 유물, 취락의 분포를 제시하여 그 변화의 동인을 인구의 증가, 역사

적 충격, 자연충격으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역사적 충격과 자연적 충격은 거주지의 확산과정에 제동자 역할을 한 반면에 거주지의 확산과정은 육지생태계와 해양생태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구조화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섬의 거주공간의 변화를 생태인류학과 역사인류학의 접합을 통해 지도상에 연대기적으로 구조화된 양상을 파악하려는 점에 있다.

한편, 이보형(1983: 249)은 메나리토리 무가 민요권의 음악특징을 지도에다 권역화하는 작업을 시도한 바 있다. 그는 메나리토리 무가가 기층음악문화를 이루는 지역은 함경도 전 지역, 서북부를 제외한 강원도 전 지역, 서남부를 제외한 경상도 전 지역, 충청도 동부지역이라고 한다. 메나리토리 민요권은 무가권의 지역 경계와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함경도 전지역, 서북부지역을 제외한 강원도 지역, 경상도 전지역, 경기도 동남부, 충청도 동부, 전라도 동북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을 소묘하고 있다. 그는 문화권의 개념을 통해 민속음악문화의 특징을 지도화한 것이다. 김택규(1966~67)는 민속문화요소, 즉 달맞이·달집사르기의 관행과 上元假裝演戲의 분포를 문화지도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그는 한국의 기층문화가 층위화된 양상을 권역별로 구분·해석하려고 하여 기층문화를 추석권, 단오권, 추석 단오의 복합권으로 나누어서 제사, 예능, 생산의례, 신화, 세시풍속, 민속신앙, 민속연희, 민속유희, 물질문화, 친족, 방언, 통과례 등을 권역별로 분류하였다(김택규 1982: 6-7). 이러한 연구는 민속문화지도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분포되어있는 문화양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각 문화요소의 같고 다른 점을 비교하여 어떻게 문화권역을 설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연구조사단위가 어떠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박성용(1999, 2000a)은 청도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서원·재실·정자 등의 유교문화경관을 지도화하고 이 지역의 재향사족이 그들의 학연·당론·예법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유산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정당

화하는 실천전략으로서 어떻게 동원하는지를 기술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서원과 재실, 정자를 기호로 표현하고 유교 문화지표가 어떻게 지역민의 신분에 대한 사회의식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한 사회의 양반문화가 어떻게 시대를 거치면서 각 지역별로 중층·복합되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농업기술사분야에 있어서 이춘녕(1964: 111)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호미모양과 분포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호미유형을 각 도별로 소묘하여 제시하여 물질문화에 관련된 지도를 제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몇몇 학자들은 나름대로의 새로운 문화지도학적 접근을 시도하였지만 그 분석방법이나 기호학적 표현 방법, 정확도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속문화 요소나 고고학적 유적, 지역방언에 관한 지도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문화요소의 관계체계나 민의 심성에 관한 자료를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도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지역이나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文化事象을 지도화하는 작업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인식론적 천착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그러다 보니 민족지학자들이 문화적 경계나 이동의 축,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문화지도 총람집을 작성하는 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까지 민속학·인류학 분야에서 시행된 문화지도를 개관해보면 연구자들이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하기 위해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을 실현한 경우는 없다. 인문과학 분야에서는 지도상에 문화요소를 표현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류의 작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문화지도학적 방법과 내용, 연구조사단위를 설정한 뒤에 이미지화의 작업을 적절하게 고려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던 문화지도학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개별연구자나 관련기관이 전국의 각 지역문화를 지도화하기 위해 조사항목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각 지역의 역사성과 공간성에 따라 문화를

비교연구하는 관찰단위와 수준, 그리고 조사프로그램을 계획한 경우가 드물다. 또한 연구자들이 질문서 방식을 통한 통계적 분석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일정한 범위의 표본단위를 선택하고 난잡한 자료를 독자들 자신의 목적에 알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적인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Nagashima and Tomoeda 1984: 7). 즉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치밀하게 각 지역별 사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표본 마을의 선정, 지도와 항목에 대한 부호설정, 질문내용 등에 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가하면 아직도 우리의 문화지도학적 연구는 지도상의 축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점과 선으로만 문화요소를 표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문화지도학은 “지형학적 표상을 1/10mm로 축소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그 표현의 상징적 영역과 형태를 다양화하는 작업”(Cox 1982-1983: 275)을 요구한다. 지도상에 표현된 다양한 민족지 정보는 설득력있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이런 접근에서 유의해야 할 문제는 연구자가 어떻게 문화요소를 지리적 거리와 준척을 통해 정확하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 밖에 지리적 공간과 사회·문화적 현상에 관한 문화지도학적 분석을 하기 위해 연구자는 어떠한 문화요소를 조사·기술하여 지도화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즉 사상(事象)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조사 항목에 대한 검토를 해야한다. 이것은 한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지도 평면 위에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문화지도화가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지리적 공간

- 도로, 수로, 기후, 연중 기온변화, 강우량, 지질, 토지이용방식, 작물류, 전담, 학교, 공공건물, 천연기념물

- 역사와 문화경관
 - 경계비, 기념비, 건물, 교량, 유물, 유적, 명승지, 사찰, 분묘, 비석, 당간지주, 성황당
- 인구
 - 지역별 인구밀도와 직업·교육정도, 종교별 인구수, 인구변동, 출생 및 사망자 수
- 지역사회의 지형·토양, 지질
- 지역민의 생활권역
 - 세시풍속, 놀이, 정기행사, 시장권, 대인관계망, 건축양식과 형태, 가구종류, 거주관행
- 오락과 유희, 어린이 놀이, 전통적으로 여흥을 즐기는 방식
- 가족
 - 지역별 가족구조, 가족주기, 상속유형(재산소유권)
- 친족
 - 지역별 친·인척관계, 분가·분촌 과정, 문중 조직, 동족간의 협동 방식, 문중재산분포
- 지역별 친족 호칭
- 종족집단의 이주와 정착 연대, 큰집과 작은집의 관계, 지역민들의 통혼권
- 유교문화 경관지도(서원·재실·정자 등), 전통 건물이 배열된 구조(종가·사당·집회소 등)
- 조상의 묘지, 묘각 유무(有無), 사당 재실의 호칭·규모·관리, 제사조직체, 위도
- 효자·열녀(각)의 존재, 친족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시설
- 향교와 사액서원·문중서원의 증감
- 경제적 협동의 단위, 신분관계
- 생활주기
 - 임신·출산·유아·소년(소녀)·청년·노년·사망(장례식)·

16 박성용

계절별 행사

- 임신 관행: 계절별 출산 분포, 분만 준비(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출산 후 관행
- 수유 방식(시기·방법·태도), 이유 방법, 식사 방법, 배설 관행
- 세시풍속: 1~12월까지 행하는 세시 및 민속연희
- 정치생활
 - 촌락간의 대립, 계층 간의 대립, 세대 대립, 정치권역
- 산업·경제생활
 - 토지, 경영과 노동, 자본, 협동유형, 시장권
 - 토지제도와 크기, 가격, 경작방식, 비료 및 추수방식, 농기구, 관개 수리방식, 농업 노동요
 - 교환노동, 계, 협동조직
 - 화전민과 화전: 화전민의 정착·변화과정, 화전작물, 수확물
- 생태·환경
 - 자원과 기술
 - 농업력과 수산력, 생산양식, 생산단위, 소비단위, 노동조직
 - 기술수준, 기술의 혁신과 적응
 - 영양과 생물학적 적응(주식과 부식, 식물의 종류, 식사내용)
- 물질문화
 - 명칭, 용도, 금액, 재료, 사용하는 시기, 장소, 제작연대, 부분 명칭, 제작법
- 의·식·주생활
 - 의생활: 의복 종류, 옷감, 작업도구
 - 식생활: 주식, 부식, 별식, 계절별, 음식 금기, 공동식사
 - 주생활: 가옥구조, 건물 수, 건물용도, 가족구조와 가옥과의 관계
- 종교 및 의례 생활
 - 통과의례, 민간신앙(집단신앙과 개별신앙), 구비전승, 신흥종

교와 기성종교, 지역별 연회

• 기타 유형 · 무형의 문화재

전술한 조사항목은 필자가冒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문화적, 공간적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작성·분류·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조사자가 현지의 자료를 수집할 때 파편화된 개별적인 요소보다 사회·문화적, 생태적, 정치적, 경제적 제 요소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맥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한다. 비록 어떠한 문화요소가 한 촌락사회나 지역사회에 있어서 개별적이고도 특징적인 양상으로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가 관련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관계를 맺는 영역에 관한 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료제보자나 집단의 관념적 경계와 지리적 경계, 친소성에 따른 가깝고 먼 공간에 관한 인식, 민속관행과 표상, 그리고 언설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정체성의 경계들을 지도에 표현할 경우 더욱 설득력있고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 할 사항은 앞에서 언급한 조사항목을 어떻게 문화지도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독자들은 '종교적 성향이나 사회관계를 어떻게 지도화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종교적 성향을 지도화하고자 한다면 주민의 종교를 시대별로 지도상에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포양상에 관한 그 사회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이러한 분포도라도 문화지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알프스산을 중심으로 한 미시지역별 주민들의 상이한 종교분포양상과 언어권을 관련지우면서 그들이 종교에 따라서 어떠한 날을 좋고 나쁜 날로 구분·인식하고 있는지를 병치시켜 권역화한 바가 있다(Bromberger, Dosseto, et Schippers 1982-1983: 48). 이러한 작업은 종교적 관행에 관한 문화지도학적 연구의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지역민의 사회관계만 해도 어떠

한 연구자가 지역의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사회체계나 규칙에 관해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문화지도를 소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한 지역민의 사회관계가 어떻게 지리적 공간상에 구조화되어있거나 배열되었는가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 마을이나 지역사회 주민의 통혼권·묘소권·친척관계가 지리적 공간에 배열된 상태 등을 묘사하는 지도학적 작업은 다양한 의미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 1958: 249)가 보로로족의 마을 구성방식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과 같은 예이다. 그가 공간에 관해 주장하는 바는 지리적 공간이 인식 주체의 상징과 영상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박성용 2000b: 345). 그의 이러한 작업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내재한 규칙과 관념적 경계가 지리적 공간상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사항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문화지도학적 입장에서 다루는 주제의 범위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조사항목을 통해 연구자가 한 조사지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지도 위에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그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자한다면 이 방법은 자료의 한계에 기인하는 민속학적·인류학적 해석과 분석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4. 문화지도학의 측면에서 본 연구·조사단위의 문제

지역사회별 사회 문화적 체계의 포괄적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각 지역에 존재하는 문화 특징을 조사 분류 기호화하고, 왜 상이한 문화권역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문화경관의 경계가 어떻게 존재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동하여 정착하였으며 행정권역과 어떻게 일치되거나 불일치 되는지 등에 관해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사 전달체계, 사회적 공간, 교통체계, 언어권, 민담, 전설, 민요, 체질적 특징, 의 식 주생활, 세시풍속, 의료관행, 민속놀이, 기술 및 물질문화, 방언, 생업공간과 교역공간의 변화, 노동의 사회적 분화 양상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화적 경계와 변화의 축 등을 究明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에 관해 문화지도는 제 문화요소가 상이하게 분포하는 이유와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류학적·민속학적 척도만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관점도 바꾸어야 한다. 자료를 수집 기술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지역사회와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사회단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 먼저 지역사회의 기본성격에 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는 '鄉' 과의 관련성에서 그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향은 '고을', '교장' 과 같은 의미로 15세기이래 면리제가 정착되면서(이수건 1998) 주민의 일상생활 영역이 행정단위로서 몇 개의 면 권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생활공동체를 이루었던 공간이다. 전통적으로 행정구역상 몇 개의 면은 一鄉의 단위가 되었고, 통혼권, 시장권, 묘소권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민은 대개 왕복으로 하루정도 걸리는 거리 내에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리하여 지역민은 이러한 권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역을 이루고, 또한 사회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요약컨대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단위를 형성하고, 지역민들 사이에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인 커뮤니케이션 관계망과 밀도가 어느 정도 구획지워져 있고, 집단적 관습과 전통의 토대가 되는 場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민의 심성사와 사회 경제변동이 역사적으로 층위

화된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전통사회의 행정 제도가 일방적으로 주민의 사회 문화적 활동의 권역과 경계를 결정짓고 제한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역민의 사회 문화적 경계는 상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행정제도에 의해 구획되지 않았다는 점이다(박성용 1996: 2). 오히려 행정제도와는 어느 정도 별개로 통합된 상태에 있으며, 그 문화적 事象은 지리적 경계상에 획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계 상에 집합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鄉은 행정구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역사적 삶의 모습이 적층화된 경제적, 사회 문화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경제체제나 정치체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으며 문중조직, 유향소, 서원 등과 같은 교육 사회조직을, 그리고 혼인관계나 자발적 결사체 성원관계를 통해 지역민간의 사회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흔히 리 면 군 도 전국이라는 행정적 분류단위와는 상이하게 구역화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지역공동체로 인식하여 행정권역이 재구조화된 상태로 존재한다(박성용 1996: 3). 그리고 이들의 교통체계, 사회적 공간, 세시풍속, 민속놀이, 의 식 주생활, 농기구와 어로기구, 건축양식 등의 문화권역은 행정권역과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이 점은 “전통적으로 문화권의 형성과 지속은 지역 경계를 넘어가는 혈연(문중과 종족)조직과 서원끼리의 학연,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통혼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김광익 2000: 13). 특히 통혼권은 미시적 촌락사회에 한정되어 있기 보다 어떠한 지역민의 사회공간적 표상과 실천방식을 나타내 주어서 각 집이 갖는 지위와 친족의 연대관계에 의해 다른 집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지역사회의 혼인망에 관련된 통계적 질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밖에 지역사회 의 물질문화, 묘소권, 사회조직, 생태계 등은 행정경계를 뛰어 넘어 특징적인 문화적 경계를 형성한다. 물론 이러

한 경계는 지역별로 상이하겠지만 1980년대 이후 붕괴되거나 재구축되는 양상을 띤다. 앞으로 연구자가 이러한 요소를 시대별로 연속과 불연속된 실상을 지도화한다면 각각의 경계가 어떻게 일치·불일치 되거나 변화되었는가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5. 몇 가지 제언

문화지도를 활용하는 일은 장·단기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지역민의 문화사와 거시적인 국가사가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 문화적 층위와 그 분포특징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문화지도에 대한 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종교학, 농경제학, 방언학, 심리학 등의 영역과 다학문적 접근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관련자료와 지식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분야의 지역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문화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박물관·연구소, 그 밖의 문화기관이 협력하여 각 지역별 문화지도 총람을 연대별, 주제별로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발간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역의 文物을 수집하기 위해 질문서에 의한 전국적인 통계적 조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사회단위의 문화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때 지역전문가들이 민족지 자료를 코드화하고 분류하며 수집하는 일을 공동으로 할 경우, 이 작업은 장기간 다양하게 구조화된 문화사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범위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자는 자료제보자, 즉 공무원, 門長, 이장, 그리고 향토사학자, 지역주민들과의 면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현 시점의 지역문화요소가 어떻게 과거의 역사적 실재를 반영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세종실록지리지, 팔도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

승람, 기타 사찬·관찬의 지방지와 사료, 전적에 나타나는 산천, 토산, 봉수, 누정, 학교, 역원, 사묘, 불우, 고적 등을 건치연혁 등과 관련시켜 문화지도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박성용 1996). 그 밖에 최근에 작성된 군지·마을지 등에 기록된 문화요소를 지도화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연대기별로 절적, 양적 접근을 통해 민속문화권역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일차 자료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과거와 현대를 유기적으로 연관짓는 작업과 아울러서 행정권역과 문화권역이 어떻게 접합·병치되는지를 파악하는 작업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상을 알기 위해 연구자는 지역민의 생애사, 구술사를 통해 지역문화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문화지도는 지리적 공간상에 분포한 문화 요소들을 수집·색인·보존·해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면서 문화정책을 입안하는데 데이터 베이스화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문화 요소들간의 상호관계 체계 속에서 그 지리적 분포를 포괄적이고도 다면적으로 究明하는 데에 사용되는 분석도구이다. 이러한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연구자들이 노력한다면 지리적 공간 속에서 장기적 시간을 거치면서 물질·경제생활에 따른 지리적 공간이동, 사회관계와 관행 등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인류학자나 민속학자들은 이를 통해 한국의 각 지역사회가 갖는 상이한 역사적·생태적·지리적·이념적 배경과 중심부와 주변부의 공간분화, 사회공간, 상업공간과 교역공간, 인구이동의 축, 교통공간 등을 지역별, 연대기별로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지도는 지금까지 한정된 인류학·민속학·역사학·지리학의 연구영역을 다양하게 개척·확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필자는 이 방법이 연구 주제를 시간적·공간적 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민족지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미있는 서술과 해석을 하는데 이바지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김광억

- 2000 “지역연구 방법론 개발을 위한 시론”, 『지방사와 지방문화』 2집, 역사문화학회.

김택규

- 1966~67 “경북지방의 연중행사”, 『청구대학논문집』 Vol. 5-6.
1982 “한국기층문화론시고”, 『인류학연구』 제2집,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연구회.

박성용

- 1996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문화요소에 관한 지도학적 접근”, 영남대 민족문화 연구소 9월 월례발표회 요약문.
2000a “지역사회의 문화지도-청도의 서원·재실·정자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7호, 국립민속박물관.
2000b “한 농촌사회 주민의 통혼권에 나타난 관념적·지리적 경계와 그 변화”, 『한국문화인류학의 이론과 실천』, 내산 한상복교수정년기념 논총간행위원회, 서울: 소화.
2001 “문화지도: 자료활용방법과 조사내용”, 『지방지 편찬의 새로운 방향모색』(제 1회 역사문화학회 워크샵 요지문), pp.113-123.

이광규

- 1975 “은거제도의 분포와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7집, 한국문화인류학회.

이보형

- 1983 “메나토리 무가 민요권의 음악문화”, 『한국문화인류학』 1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24 박성용

이수건

1998 『한국중세사연구』, 서울: 일조각.

이춘녕

1964 『이조농업기술사』, 서울: 한국문화원.

전경수

1984 “거주지의 확산과정: 전남 진도의 경우”, 『한국문화인류학』9집, 한국문화인류학회.

Bertin J.

1967 *Sémiologie graphique*, Paris: Mouton et Gauthier-Villars.

Bratanić, B.

1978 “Ethnological Cartography and Atlases”, in J. Cuisenier ed., *Europe As A Cultural Area*, Paris-La Haye: Mouton.

Bromberger, C.

1991 “Cartes ethnographiques”, in P. Bonte et M. Izard(sous la direction de), *Dictionnaire de l'ethnographie et de l'anthropologie*, Paris: P.U.F.

Bromberger, C. et Digard J.P.

1975 “Pourquoi, comment des cartes ethnographiques de l'Iran”, *Objects et Mondes*, XV.

Bromberger, C., Dossetto D., Schippers T.K.

1982~83 “L'ethnographie en Europe: coups d'oeil rétrospectifs et questions ouverts”, in *L'ethnocartographie en Europe*, Revue trimestrielle vol. 1, No. 1-4, Aix-en-Provence: Centre d'ethnologie méditerranéenne.

Brunet, R.

1987 *La carte, mode d'emploi*, Paris: Fayard.

Cox, Heinrich, L.

1982~83 “Le traitement informatique des données en ethnocartographie”,

in *L'ethnographie en Europe*, Revue trimestrielle vol. I, No. 1-4,
Aix-en-Provence: Centre d'ethnologie méditerranéenne.

Gould, P. et White R.

1974 *Mental Maps*, New York: Pelican Books.

Graebner, F.,

1911 *Methode der ethnologie*, Heidelberg: C. Winter.

Kretschmer, Ingrid

1982 "L'Atlas de folklore", in *L'ethnographie en Europe*, Revue
trimestrielle vol. I, No. 1-4, Aix-en-Provence: Centre
d'ethnologie méditerranéenne.

Kroeber, A. L.

1939 "Cultural and Natural Areas of Native North America", *American
Archaeology and Ethnology*, Vol. 38.

Lévi-Strauss, Claude

1958 *Tristes Tropiques*, Paris: Plon.

Nagashima Nobuhiro and Tomoeda Hiroyasu

1984 *Regional Differences in Japanese Rural Culture*, Senri Ethnological
Studies, No. 14, Osaka: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Parain, C.

1979 "Les anciens procédés de battage et de piquage en France", in
Outils, Ethnies et développement historique, Paris: Editions sociales,
pp.17-28.

Park Sŏng-Yong

1999 "Ethnocartography of Regional Society: A Case Study of
Chongdo", 26 AKSE Conference, Hamburg.

Peltre, J. et Thouvenot, C.

1987 *Alimentation et régions*, Nancy: Presses Universitaires de Nancy.

26 박성용

Ravier, Xavier

1978 *Atlas linguistique et ethnographique du Languedoc Occidental*, Paris:
Editions du C.N.R.S.

Van Gennep, Arnold

1982(1937~1958) *Manuel de folklore français contemporain*, Paris:
Picard.

Wisseler, C.

1926 *The Relation of Nature to Man in Aboriginal America*, Lond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 Research Method of Ethnographic Material and Cultural Items in Ethnocartography

Park Söng-Yong

Ethnocartography is an analytical, interpretative, and collectable tool to examine diverse cultural elements in view of a heuristic approach. It is possible for us to interpret a cultural boundary and an axle of the geographical mobility of different culture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time of a local society. Anthropologists sometimes question the utility of diffusionism and the cartography of cultural facts after functionalism. Increasingly, however, anthropologists, who had tried to escape the confines of functionalism, are concerned with recovering what they can from a historical and geographical documentation.

This method of ethnocartography provides an opportunity to know the diverse aspects of cultural characteristics in which a regional society is structured. It can help interpret and know not only the structured and underlying rule or order of the society, but also propose useful ethnographic data to understand social strategy for changing a given situation, like the distinction of different social class between aristocratic class and lower class.

Also, this method can present a semiologic graph about cultural elements in order to interpret socio-cultural facts which are correlative to each other. That is to say, we must reorganize the ethnographic maps through the critical examination about the geographic, cartographic, semiologic graph, and other methods for the detailed description and devices. In this case, we

must consider the correlations of diverse instances, and reorganiz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dependent on local cultural history which was based on existing geographic and ethnohistorical data.

On the local level, specialists must work together to collect, classify, and codify ethnographic data, because this work demands the convergence of multi-dimensional perspectives about the differently structured cultural history for a long time. One can't do it by oneself, but can explore various ways of cooperative work along with universities, national museums, and research institutes. A cartographer must examine the systematization of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 on the cartographical level, because the cartographical method makes us connect the distribution and changing process of cultural elements in a regional society.